

學術委員長 李 麟 星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4年前 創刊號부터의 지난 날을 회고하여 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未來를 展望하여 보니 「이제는 우리도 되겠구나」 하는 푸른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저 무심히 흐르는 시간속에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붙들고 의미 찾기에 분주했던 그 날들이 아련한 감회를 자아내어 천년이 가고 또 다른 천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回顧와 展望은 그 어느 때보다도 有別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始作이 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태어났던 회지 「大韓韓藥」이 벌써 4號가 나오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이제는 成人이 되는 것만 같아 우쭐대고 싶은 衝動을 느낍니다

會勢는 해마다 줄어들고 회원들의 活動年限도 점점 짧아지지만 그래도 會誌에 대한 熱意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어서어서 우리의 所重한 驗方이나 새로운 學術들을 있는 대로 모두 모아서 永遠토록 保存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切感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晷景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醫學의 發展도 눈부시게 發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 속에선 洋醫學이건 韓醫學이건 知新없이 溫故에만 매달려서는 發展된 來日을 期待할 수 없을 것입니다

文獻에도 “歲月の 變遷과 環境의 變化, 習性の 差異 등이 時時로 變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念頭に 두지 않고 無條件 옛 것에만 매달린다면 어찌 새로운 病을 治療 할 수 있겠느냐”고 注意를 喚起하고 있으니 “溫故而知新”이라는 警句가 바로 우리의 姿勢 鼎立의 一環으로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새 知識의 發掘과 學習이 이 時代의 趨勢인지라 우리도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여야 하는 것이 切迫한 現實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必然코 媒體가 있어

야 할 것이니 바로 學術紙가 主導的이요 先導的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韓藥界의 主導者는 唯一한 學術紙인 「大韓韓藥」誌인 것으로 會員相互間의 新情報交換이나 新知識의 普及의 廣場인 것입니다.

그러한 觀點에서 보면 지난 4년간 發刊되었던 「大韓韓藥」會誌는 얼마나 多幸스럽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陰으로 陽으로 參與하여 주신 會員도 數百이 넘고 보니 이제는 名實相符한 우리 韓藥業士의 知識의 寶庫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물론 전체회원들이 모두가 參與하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한해 두해 年輪을 더해 갈 수록 參與會員은 더욱 늘어 날 것이요 그리되면 秘藏된 遺産들은 한걸 두걸 꺾질을 벗고 우리의 廣場에 滿開할 날이 올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그렇게 될 때 먼훗날 우리 韓藥業士도 한 時代中點에서 國民保健의 一翼을 擔當하였고 心血을 기울여 仁術을 베풀었다는 業績이 大韓民國 韓醫藥史의 한페이지를 裝飾하게 될 것이요 아울러 우리 後學들의 좋은 評價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 千年이 始作되었다고 나라마다 團體마다 가지가지의 行事와 計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韓藥業士도 舊態에서 벗어나 새로운 覺悟로 우리 學術을 燦爛하게 發展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遠大한 靑寫眞을 그리면서 새로운 學術元年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所望하면서 發刊辭로 가름합니다

2000 3 31